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9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8월 9일)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올 가을, 전국은 '선명상'으로 물든다

9월 27~30일, 전국서 선명상 축제
호국연무사·쿠무다·범어사 등
전국 11개 사찰, 기관서 특강 열려
지역주민·계층별 맞춤 프로그램들
"선명상 홍포, 간화선 대중화 첩경"
40개 사찰서 선명상 템플스테이도

임은호 · 김내영 기자



'교종본찰 봉선사 성보' 만나보세요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과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9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 박물관 전시실에서 개최하는 2024 특별전 '큰 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본찰 봉선사' 대중 공개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내빈이 주요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있다. 글 · 사진= 김내영 기자

〈관련기사 9면〉

9월 말, 전국이 명상으로 물든다. 국민들의 마음평안을 발원하고 한국불교 수행 전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리는 '2024 국제선명상대회'를 전후로 전국 곳곳에서 선명상 향연이 펼쳐진다.

9월 27~30일 진행되는 '전국 선명상 축제'는 전국 11개 사찰과 기관에서 만날 수 있다. 지역 주민과 더불어 다양한 계층에게 선명상을 진면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축제에서는 해외 명상 지도자 초청 특강을 비롯해 사찰과 기관의 특성이 맞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다.

미래세대 포교를 위해 대전 **보문고**에서는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구글 명상가 차드 멩 탄이 '뇌를 깨우는 15초의 기적! 명상'을 주제로 선명상 특강을 펼친다. **중앙승가대**에서는 9월 30일 오후 3시부터 툽텐진파 박사 초청 특강이 열린다. 'Mind life로 확인하는 명상의 힘'을 수행과 포교 관점에서 푸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청년세대를 위한 자리도 마련된다. 군종특별교구 **호국연무사**는 9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군장병 2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이순간, 행복한 삶! 명상 콘서트'를 연다. 곽정은 작가의 강연과 상담에 이어 뉴진 스님의 디제잉이 펼쳐진다. 서울 **홍대선원**은 9월 29~30일 양일간 'Just be! 홍대선원 선명상 WEEK'를 진행하고 선태극권, 드로잉, 싱잉볼 명상 등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부산 **쿠무다**는 9월 27일 오후 5시부터 송정해수욕장에서 선명상축제 부산전야제를 실시한다. 108배 경진대회 등 풍성한 자체 기획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선명상 축제는 사찰에서도 이어진다. 서울 **조계사**는 9월 29일 오전 11시 행복한 수행자로 불리는 직메 린포체 초청 특별 법회를 실시한다. '진정한 깨달음의 기준! 자비와 지혜'를 주제로 강연과 실참이 60분간 이어진다. 서울 **봉은사**는 9월 29일 오후 3시부터 '봉은사 선명상 축제'를 해외·국내 연사 강연을 진행한다. 툽텐진파와 금강 스님이 강연과 실참을 지도하며 AI상담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 **서고사**는 서고사세계평화명상센터 개관을 기념하며 9월 29일 오후 2시 차드멩탄을 초청, 강연과 실참을 진행한다. 명상 수행과 행복한 삶을 주제로 하며 첼리스트 정호 스님 등이 연주하는 클래식 명상 음악 공연은 덤이다. 1박 2일 템플스테이와 연계, 30일까지 이어진다.

평창 **월정사**는 9월 29일 오전 10시 국제수행센터 플럼빌리지 지도자 팝루 스님와 함께하는 초청강연을 진행한다.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 修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사례 중심으로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실시된다. 오대산 선재길을 걸으며 걷기 명상, 생생야행, 선요가 명상 등이 진행된다.

부산 **범어사**에서는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로시 로장 할리팩스 초청 강연이 이어진다. '죽음명상! 죽음이 있기에 아름다운 삶'을 주제로 하는 이번 강연은 싱잉볼 명상을 경험할 수 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남양주 **봉선사**는 9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반려동물과 반려가족 1100팀을 대상으로 '반려견과 함께 힐링하는 마음챙김축제'를 연다. 반려견을 위한 염주목걸이 만들기, 반려견과 함께하는 마음챙김 걷기명상, 반려견 전문가 초청 강연과 식물성 간식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선명상 홍포는 간화선 대중화 위한 첩경"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축제는 몸과 마음이 힘든 국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 전달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 간화선 이해와 관심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선명상 프로그램은 축제를 위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대사회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선명상 축제는 템플스테이에서도 이어진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9월부터 전국 40여 사찰에서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상시 운영한다.

선명상 템플스테이는 누구나 쉽게 선명상을 배우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기획된 특별 프로그램으로 기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선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각 사찰별 특화 명상법도 만나볼 수 있다.

문수암의 '바보(바라보기) 선명상' 템플스테이에서는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선명상을 배울 수 있다. 선명상의 원리와 효과에 대한 설명은 물론 걷기, 좌선, 장호흡 등 실참도 준비됐다.

집중수행 프로그램으로는 **축서사**의 '쉬고 쉬고 또 쉬고(참선 집중수행)'이 있다. 6박 7일간 입승스님 지도로 하루 10시간씩 정진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선명상 템플스테이도 마련됐다. **불갑사, 자비선사, 동화사** 등에서는 성인뿐 아니라 초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연등국제선원**은 외국인들을 위한 '마음의 문고리를 잡다' 템플스테이를 연다. 인도 출신 주지스님이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며 선명상을 직접 지도한다.

선명상 템플스테이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파주 용암사 직접 관리한다

용암사 · 파주시, 9월 5일
관리단체 위탁 협약 체결
상시 보호 · 안전관리 담당

국가 보물로 지정된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의 관리 주체가 파주 용암사로 위탁됐다. 국유문화유산에 대한 상시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이 가능해지면서 보존·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파주 용암사(주지 혜공 스님)와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9월 5일 파주시청 접견실에서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단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용암사 주지 혜공 스님(조계종 문화부장)과 김경일 파주시장, 공승관 조계종 문화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마애이불입상의 관리 주체는 기존 파주시에서 용암사로 이관됐다. 용암사는 마애이불입상의 원형보전과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상시 보호 및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높이 약 17.4m에 달하는 국내 최대 석불 중 하나다. 천연 암벽을 활용해 선각하고, 그 위에 불두(佛頭)를 별도로 얹어 조성한 거대 불교 조각이다. 1963년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 지정 이후 파주시가 관리단체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용암사는 고려 때 창건된 이후 일제강점기에 불자들의 노력으로 크게 중창해 경기 북부의 대표적 전통사찰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용암사는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보물 지정 이전부터 해당 성보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며 전통사찰의 책임을 다해왔다.

이번 관리단체 위탁 협약은 그간 성보이자 문화유산으로서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을 꾸준히 돌보고 지켜온 용암사의 책임과 역할을 인정받고, 행정적 관리 주체로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강토를 굽어보며 자애로운 미소로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지킨 파주의 자랑"이라며 "용암사가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정성다해 돌보고 책임진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밝혔다.

용암사 주지 혜공 스님은 위탁 협약이 또 다른 의미의 '환지본처(還至本處)'라고 평가했다. 혜공 스님은 "'환지본처'는 도난당한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뜻은 물론 성보에 대한 권한과 무형의 자산이 본래 자리를 되찾는다는 의미도 포함됐다"며 "협약을 통해 용암사는 관리 주체로써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전통사찰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국내 문화유산의 관리 권한은 대부분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에서 사찰로 관리 주체를 위탁하는 경우는 1970년대 이후 오랜만이다"라고 감사를 전한 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많은 사찰이 진정한 관리 권한을 갖는 주체로 환지본처가 이뤄지길 바라고, 조계종 문화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파주 용암사와 파주시는 9월 5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단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dongguk UNIVERSITY 영캠프

Dongguk University
Young Camp - Festival with Buddhism

YOUNG CAMP

일시 · 장소
2024.09.24.(화) 17:00 – 21:00, 장충체육관

영캠프는 자승 대종사의 깊은 뜻에서 비롯된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불자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셨으며,

동국대학교 돈관 이사장스님께서 이 염원을 이어받아
영캠프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주셨습니다.

불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새롭게 느끼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영캠프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생연합 학생기획위원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행사입니다.